제16강 최후의 만찬

1. 파스카(과월절) 만찬 준비(22,7~13)

1.1 출전, 문학양식과 구조

루카 복음사가는 루카 복음 22장 7절에서 13절까지를 마르코 복음에서 따와 편집했다. 주요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루카 복음사가는 마르코 복음(14,12)의 '무교절 첫 날'을 '무교절 날'로 바꾸었다(루카22,7). 둘째, 루카는 예수님이 파스카(과월절) 준비를 위해 제자들 가운데 둘을 보내셨다는 마르코 복음의 진술(14,13)과는 달리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하셨다고 서술했다. 셋째, 루카는 제자들이 파스카(과월절 만찬)을 먹을 장소가 어디인지 질문했다는 마르코 복음의 진술(14,12)을 바꾸어 예수께서 먼저 만날 장소에 대해 의논하셨다고 서술했다(루카22,8~9)

문학양식은 서술문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입(22,7)

둘째, 파스카(과월절) 음식을 위한 지시사항들(22,8~12)

셋째, 지시사항의 이행(22,13)

넷째, 과월절과 최후만찬

1.2 도입(22,7)

"파스카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 왔다"(루카22,7)

과월절과 무교절은 이미 구약성경에서 축제가 되었다. '파스카 양'으로 옮겨진 그리스 원어(πάσκα파스카)는 '고통받다πάσχω'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는 양이 살해되는 날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탈출 12,1~30.43~46; 민수 9,1~14; 신명 16,1~8). 파스카 양은 오후 2시 반에서 5시 반 사이에 성전 구내 '사제들의 앞마당'에서 도살되었다(탈출 12,6)

1.3 파스카 음식을 위한 지시사항들(22,8~12)

22장 8절 : 예수께서는 과월절 축제에 대한 율법(신명 6,16)을 지키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을 시켜 준비하라고 분부하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먹을 파스카 음식'이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음을 강조하셨다. 이와 달리 마르코 복음 14장 12절에서는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라고 서술되었다. 베드로와 요한의 임무는 과월절을 지내기 위한 방을 마련한 뒤 성전으로 가서 파스카 양을 도살하고 쓴 나물과 누

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과 포도주를 장만하는 것이다. 과월절 만찬은 요시아 임금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서 먹어야 했다(2역대 35,16~19) 그러나 순례자들의 수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예루살렘 시 안에서도 허용되었다.

1.4. 지시사항의 이행(22,13)

"제자들이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 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루카 22,13) 베드로와 요한이 해야 할 일은 과월절 만찬을 위해 양을 사서 성전에서 도살하고 불에 굽는 일이다. 그들은 또 그 밖의 다른 음식을 장만하고 만찬을 위한 방을 정돈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죽음의 위협에서도 상황을 완전히 관장하시며 하느님 백성의 해방을 기념하실 준비를 하셨다.

1.5 과월절과 최후 만찬

'최후 만찬'이라는 말은 신약성경에 나오지 않으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신 바로 다음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데서 유래한다. 56년경에 쓰인 코린토 전서에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께서 배신당하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신 만찬(1코린 11,23~25)을 '주님의 만찬'이라고 불렀다.

제자들은 니산 달 14일이 끝나고 15일 과월절이 시작되는 일몰에 최후 만찬을 준비했다. 월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일몰을 새날의 시작으로 여겼다. 과월절인 니산 달 15일은 이렇게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일몰 때까지이다. 공관복음에서는 이 날이 최후 만찬이 거행된 저녁, 예수께서 체포되신 밤(마르 14,26.43~46.53; 루카 22,39.47~54; 마태 26,30.47~50.57)과 그 이튿날 아침과 처형되신 오후를 포함한다. 이 날은 안식일 전날(성금요일), 즉 준비일이었는데 그 해에는 과월절과 안식일 준비일이 같은 날이었다.

요한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과월절 이전에 최후 만찬을 거행하고(요한13,1~2), 만찬이 끝난 후 체포되어 (18,2~3.12~13) 다음날 총독관저로 압송되셨다고 전한다. 그것은 예수님이 과월절 전날, 즉 니산달 14일 과월절 준비일에 단죄되어 십자가에 처형되셨는데, 유다인들은 그분의 시신이 그 해 '큰 날'인 안식일에 십자가 위에 방치되지 않도록 빌라도에게 시신을 내릴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했다(요한 19,31). 이 표현은 과월절과 안식일이 겹치는 이중축일을 가리킨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장된 날 일몰부터 과월절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예수께서 니산 달 14일 과월절과 안식일의 준비일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최후 만찬은 하루 전날, 즉 니산 달 13일(성 목요일) 일몰, 즉 과월절 준비일과 안식일의 전야제(니산 달 14일)가 시작되는 시각에 거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는 요한 복음 18장 28절에

나온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을 체포한 유다인들은 빌라도 총독의 관저로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방인 빌라도의 관저로 들어가면 부정하게 되어 그날 일몰(니산 달 14일의 끝과 15일의 시작)에 과월절 만찬을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2. 최후 만찬(22,14~20)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위해 빵과 포도주를 곧 처형될 자기 몸, 새로운 계약을 위해 쏟을 자기 피와 동일시하셨다(루카 22,19~20). 이렇듯 최후 만찬은 속죄의 제물이 되어 새로운 해방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신비, 새로운 계약을 그 주제로 한다.

2.1 출전, 문학양식과 구조

최후 만찬에 대한 기록은 루카 복음(22,14~20), 마르코 복음(14,22~25), 마태오 복음(26,20.26~29)에 나온다. 마르코 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빵을 축복하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며 그것을 자신의 몸이라고 하셨다(14,22~23). 루카 복음사가는 이 진술에 그분의 감사기도와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내 몸'**을 덧붙였다(루카 22,19; 1코린 11,24). 이 속죄사상은 마르코 복음(14,24)과 마태오 복음(26,28)에서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로, 루카 복음(22,20)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으로 서술되었다. 또 하느님의 왕국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포도 열매로 만드는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말씀(마르 14,25) 대신에, 루카 복음에는 이제부터 하느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는 말씀(22,18)이 나온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루카 22,19)는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께서 최후 만찬 석상에서 성체성사를 제정하기 전에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셨다는 마르코 복음의 기록(14,18~21)과 달리, 루카 복음에서는 그분이 만찬 이후에 그것을 예고하셨다고 서술되어 있다(22,21~23). 마지막으로 루카 복음에서 예수님은 만찬의 잔(22,17)과 계약의 잔(22,20)을 잡으셨다. 그러나 마르코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두 잔 외에 하느님 나라에서 메시아의 잔치를 위해 '새 포도주'가 든 잔을 잡으실 것이라고 했다.

공관복음에 제시된 최후 만찬이야기는 5개의 장에 걸쳐 상세히 서술한 요한 복음(13~17장)에 비해 꽤 짧은 편이다. 요한 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봉사하러 온 자기 삶을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본보기로 제시하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며(요한 13,1~20) 그들 가운데 자신을 배신할 사람이 나올 것을 예언하면서(13,2~3.18~19.27~30) 고별사를 끝맺으셨다.(13,31~17,26)

루카 복음에 나오는 최후 만찬(22,14~20)의 문학양식은 예수님의 역사에 대한 선언문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입(22,14)

둘째, 만찬의 취지(22,15~16)

셋째, 잔을 나눔(22,17~18)

넷째, 빵=그리스도의 몸(22,19)

다섯째, 새로운 계약의 잔(22,20)

2.2 도입(22,14)

14절 : 예수님 시대 유다인들은 하루 두 끼 중 저녁을 오후 늦게 먹었는데, 과월절에는 일몰 때 만찬을 먹었다.

2.3 만찬의 취지(22,15~16)

15절 :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를 간절히 바라며(루카 22,19~20), 파스카(과월절) 양고기를 먹는 예절을 사도들과의 송별연으로 여기시고 자신의 고난과 연결시켰다. 과월절의 그리스말 '파스카'(πάσχα 아람말 : 지나가다)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서술하기 위해 사용된 '고난을 겪다'(파스코(πάσχω)와 발음이 비슷하다.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하느님과 백성 사이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하느님의 결정적 구원을 창조하신다(루카 22,20). 과월절 만찬에 초대된 열두 사도들은 새 계약의 백성을 대표한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또 그들이 대표하는 모든 믿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계약의 제물로 주신다. 이 제물은 옛 해방을 위한 양의 역할을 능가하고 하느님의 어린양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다. 이 사상은 다른 공관복음의 최후 만찬에서 제시되지 않은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집트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과월절 만찬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새로운 만찬에 비추어 옛 만찬으로 묘사되며 그분이 새롭고 결정적 계약을 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16절 : 예수께서 과월절 만찬을 먹기를 갈망하신 이유는 하느님 나라에서 메시아 잔치를 거행하여 과월절의 의미를 실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마르 14,25).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가 죽음의 어둠을 넘어서서 자신을 통해 성취될 것이라고 여기셨다.

공관복음과 달리, 코린토 전서 11장 26절에서는 예수께서 주님의 만찬을 거행할 때마다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분의 죽음을 선포하라고 명하셨다.

2.4 잔을 나눔(22,17~18)

"그리고 잔을 받아 감사를 드리시고 나서 이르셨다"(22,17ㄱ)

기원 후 1세기 팔레스티나에서 과월절 만찬은 복잡하게 거행된 것으로 보이며, 가족들은 네 가지 잔을 사용했다. 첫째 잔은 가장이 이날을 경축하기 위한 준비단계의 잔으로, "포도 열매를 창조하신 당신은 복되십니다"라는 기도를 올리면서 잔을 축복하고 가족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셨다. 그런 다음 가장은 둘째 잔을 따랐다. 둘째 잔은 과월절을 경축하는 이유, 즉 이집트를 탈출 이야기를 기도문으로 설명하고 '할렐 시편'(시편 113~114)을 노래하며 마신다. 셋째 잔은 누룩없는 빵(히브리말 'lehem mazzot' : 탈출 29,2; 레위 2,4; 8,26; 민수 6,19)을 쪼개며 시작하는 과월절 만찬의 주된 부분으로, 양고기와 누룩없는 빵과 쓴 나물(탈출 12,8)을 먹은 다음 마신다. 이 만찬은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심을 기념하고 미래의 결정적 해방을 고대하며 자행되었다. 넷째 잔은 과월절 만찬의 끝부분으로 '할렐 시편'의 마지막 부분(시편114-118)을 노래한 다음 마셨다.(Marshall, Luke, 797~798).
예수께서는 빵을 축복하시기 전(루카22,17~18)과 후 두 번 잔을 들고 감사기도를 올리셨다(22,20) 첫째 잔은 과월절의 잔, 둘째 잔은 최후 만찬 후 축복의 잔을 가리키는 것 같다. 예수님은 과월절의 잔을 들고 감사기도를 올리셨다(루카 22,17ㄱ). **교회는 이 감사기도에 착안해 주님의 만찬을 '감사제(Eucharist)'라고 일컫는다.**
"이것을 받아 나누어 마셔라."(루카 22,17ㄴ) 초대교회는 주님의 만찬을 거행할 때 같은 축복의 잔과 빵을 나눔으로써 이 일치를 새롭게 체험했다. 예수께서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이 말씀으로 제자들을 양육하셨다. 그분은 생애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고난을 받기 전에 하느님을 중심으로 그들과 친교를 나누고 하느님의 나라에서 승리의 잔을 마실 것을 예고하신 것이다.
18절 : 예수님은 과월절 만찬이 끝나면 자기가 곧 잔인하게 처형될 것을 내다보고 이 만찬이 세상 종말에 하느님 왕국에서 완성된다고 여기셨다.

2.5 빵=그리스도의 몸(22,19)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루카 22,19ㄱㄴ)
예수께서는 빵 하나를 작은 덩어리로 쪼개어 사도들에게 나누어줌으로써 자신과 그들의 친교, 그들 서로 간의 일치를 창조하신다.(1코린 10,16) 빵을 쪼개시는 예수님의 동작은 '빵을 쪼갬'(루카 24,35; 사도 2,42; 20,7.11으로 서술된 초대교회 성찬례의 기원이 되었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내 몸이다"(루카 22,19ㄷ)
예수님은 상징적으로뿐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분으로서 실제로 그 빵 안에 현존하신다. 코린토 전서 11장 26절에서 29절까지도 빵이 실제로 예수님의 참

된 몸이라고 가르친다. '몸'이라는 말은 사람의 신체적 측면뿐 아니라 그의 전 실존과 자아를 의미한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을 위해 자신의 신체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제물로 주시고 제자들 가운데 새로운 현존양식을 취하셨다.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이 성체 안의 현존이라는 새로운 양식으로 살아계신다고 믿는다.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내 몸'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사도들을 대신해 속죄의 죽음을 당하심을 암시한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과월절 만찬 석상에서 자신의 죽음을 통한 죄의 용서와 구원을 베푸신다고 믿었다. 하느님께서 히브리인들을 이집트 압제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과월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제물로 봉헌해 제자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성취되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루카 22,19ㄹ) : '기억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죽음과 그분이 빵과 포도주 잔에 현존하심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라는 뜻이다. 기억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과월절을 해방의 기념제로 정하신 것과 유사하다.(탈출 13,9)

"이날이야말로 너희의 기념일이니, 이날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라. 이를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야 한다."(탈출 12,14) 같은 가르침이 신명기에도 나온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과월절을 기억함으로써 이집트에서의 해방을 새롭게 체험했다.

2.6 새로운 계약의 잔(22,20)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루카22,20)**

이 잔은 과월절 만찬의 중심 부분이 끝난 다음 마시는 세 번째 잔, 축복의 찬에 해당하는 것 같다(1코린 10,16). 예수님은 이 잔이 자신의 피를 흘려, 즉 잔인한 죽음으로 체결되는 새로운 계약의 잔이라고 말씀하셨다. '잔'은 그 안에 담긴 내용인 피, 새로운 계약을 위해 흘리시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예수님이 체결한 새로운 계약은 야훼께서 성령의 힘으로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과 맺기로 약속하신 새로운 계약을(예레 31,31) 암시한다. 이 계약은 야훼께서 시나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옛 계약을 대체한다. 루카 복음의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계약의 핵심은 성령의 활동이다(사도2,17~21,33 참조)

예수님은 성령에 힘입어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하느님께 봉헌하고 사람들을 정화하신다(히브9,14). 예수님은 예레미아가 예언한 새로운 계약을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체결해 하느님과 그분 백성 사이의 일치를 창조하셨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지는

계약의 잔은 '축복의 잔'이자(1코린10,16) 예수님과 제자들의 친교와 일치를 상징한다.(10,21) 하느님은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시나이 계약을 능가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시어 죄의 용서와 사람의 내적 성화를 이루어주신다.

루카 복음(22,20)의 병행구인 코린토 전서(11,25)와 마르코 복음(14,24), 마태오 복음(26,28)에서는 계약의 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르게 서술했다.

루카 22,20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1코린 11,25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마르 14,24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마태 26,28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루카 복음의 전통(22,19~20)은 코린토 전서의 전통(11,23~26)과 비슷하다. 마태오 복음은 마르코 복음의 진술에 '죄를 용서해 주려고'를 덧붙여 예수님의 피가 속죄의 힘을 지님을 강조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느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 받아야 한다. 그것은 주님의 만찬에 대한 초대교회의 신학을 드러낸다. 루카 복음이 '너희를 위하여'(22,20)는 마르코 복음이나 마태오 복음의 '많은 사람을 위하여'라는 말보다 인격적 차원을 강조한다. 이 마지막 표현은 '많은 이들의 죄를 짊어진' 고통 받는 야훼의 종의 모습(이사53,12)을 암시한다. 이렇게 주님의 만찬에 대한 두 가지 전통이 초대교회에 유통되고 있었다.